

탈많은 원전 가동률 90% 전제...수명 종료 8기도 포함

국가전력수급계획 엉터리

과도한 화력 의존도 문제...“여름철 전력난 부채질”

‘원전부품 비리’ 사태로 촉발된 사상 최악의 전력난 우려 속에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막상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은 원전 가동 정지 등 비상상황과 수명 완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돼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일보가 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작성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원전의 전력수급 부담률을 올해 25.6%를 시작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2027년에는 22.7%로 설정했다. 수급계획은 2년마다 작성되며, 전력수요예측과 공급대책 등 전력수급 계획 전반을 담고 있다.

이는 계획 당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과도하게 석탄화력 발전 확충(12개 1580만kW)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전력난은 물론 원전 안전 문제 등 심각한 상황이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추진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한빛(영광) 원전

1·2호기 등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8기를 모두 포함시켜 수급계획을 짜다.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가동 승인 여부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거쳐 결정해야함에도 전력당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민주·광주 남구)은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바쁘게 정부가 국가의 존폐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원전 안전은 외면한 채 전력 수급문제 해결에 급급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8기 전부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비리와 사고로 원전정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력난 때문에 무리가 있어도 원전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애꿎은 국민과 기업에게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90%가 넘는 원전 이용률(가동률)을 전제로 전력수급 계획을 짜는 점도 문제다. 이는 사실상 ‘원전은 서지 않는다’라는 전제 아래 세워진 것으로 원전 한 기당 발전용량(600만~1000만kW)이 대도시 1곳의 발전용량을 책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측 없이 여러 기가 동시에 멈추면 20% 수준으로 설정된 전력비율에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용률을 60~70% 수준으로 잡아 충분한 여력을 갖고 운영하다가 전력수급을 늘려야 하면 원전 가동을 확대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8~79% 수준이다.

김승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양한 대안을 무시한 채 (석탄)화력발전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화력은 온실가스 등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만큼 미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수급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모습 갖춰가는 새 야구장

8일 잔디심기 등 주요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실내 마감공사가 시작된 광주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현재 공정률은 59%로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최대 2만7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KIA티거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된다. /최한배기자choi@kwangju.co.kr

민선 5기 남은 1년 ‘시민주권시대’ 선언...광주시 주요 현안 시민 여론조사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49% 동의

전일빌딩 일부 존치 60% 찬성...전면부 보존키로

광주시가 민선 5기 마지막 1년을 ‘시민주권시대’로 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직접 묻는 여론조사를 거처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민근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갈등이 예견되거나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주요 정책 시민여론조사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그 첫 사례로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새 야구장 명칭 ▲전일빌딩 존치 여부 ▲특급호텔 인센티브 부여 여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임의결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새 야구장 이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확정 = 이번 설문조사에서 시민 응답자의 49%가 새 야구장 명

칭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26.7%에 머물렀다. 야구장을 이름 설문조사는 새 야구장의 명칭 사 용권(네이밍 라이트)을 갖고 있는 기아자동차에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날 이 같은 시민여론과 함께 새 이름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기 아처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라는 이름은 10번이나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 한 기아티거즈의 위상과 잘 어울려 홈구장의 명칭으로 선정했다”면서 “새 야구장의 이름에 걸맞게 명문구 단으로서 팬들에게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일빌딩 일부만 보존키로 = 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광주 금남로의 상징건물인 전일빌딩 일부 존치에 찬성함에 따라 역사성이 높은 금남로 방향의 전일빌딩 전면부는 보존하고, 동부경철서 방향의 후면부는 철거해 녹지공간 또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건물활용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1965년 1차(지상 7층) 준공된 전일빌딩은 이후 3차례에 걸쳐 증축됐으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등을 함께 겪은 역사적 건물이다.

◇특급호텔 유치 인센티브 원칙 내 에서만 허용 = 특급호텔 유치와 관련해 인센티브 제공을 묻는 질문에 ‘인센티브 없이 특급호텔을 유치하자’는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과다한 인센티브 제공을 배제하고, 행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최대한 특급호텔 투자자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 행정’에 대해 시정이 시민 인기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외부인사들이 참여 여론조사 대상 선정부터 질문 문구 등을 심의하는 가정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에 신 중을 기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국정원 거둬나야 NLL 혼란 유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박이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대통합위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하며 “상생과 공정성의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고 해묵은 지역갈등이 국가 발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세계수영선수권 개최지 결정 D-10...광주시 막판 유치 총력전

104명 유치단 구성 PT 준비 전력

(프리젠테이션)

멕시코 9~13일 美~러시아 카잔~스페인 강행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가 100명 규모의 유치 대표단을 확정하고,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막판 유치활동에 열정을 집중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국이 결정됨에 따라 현지 유치 열기 조성을 위한 유치 대표단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총회의 마지막 공식 절차인 프리젠테이션(PT)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유치 대표단에는 광주시 담당 공무원, 시의회 의원, 유치위원, 체육계 대표,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4명이 참여하며, 오는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스페인 현지에서 대회 개최

지 결정 관련 유치활동 및 PT 참가, 개최성공을 위한 현지 응원전 등을 펼치게 된다.

시는 또 외교부 등 정부 부처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요청, 스페인 주재 해외공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유치전이 진행중이며, 정부에서 대회보장(대회운영 정부 협조 및 입·출국 편의 약속)을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현재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3개 도시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FINA 집행위원 21명(헝가리 1명 제외)이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개최도시를 결정한다.

한편, 강은태 광주시장은 9일부터 21일까지 11박 13일 일정으로 미국과

러시아, 스페인을 경유하는 강행군에 나선다. 강 시장은 9~13일까지 미국 LA와 샌안토니오를 오가며 투자유치와 함께 2013도시환경협약(UEA)정 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이어 14~17일 러시아 카잔에서 2015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인수한 뒤 18~19일 이틀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활동을 진두지휘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에너지관리공단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100W 줄이기 꼭 함께 해요!”

모두가 힘을 모으면 올 여름 전력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 닫고 냉방으로 더 시원하게!
절전하는 시원한 가계에서 쇼핑해요

여름철 건강온도 26°C!
시원한 옷차림에 건강온도 지켜주세요

오후 2시~5시에는 절전 실천!
하루 중 전기가 가장 부족한 시간은 오후 2시~5시입니다

안 쓰는 플러그 뽑기는 기본!
플러그 뽑기(대기전력 차단)만으로 6%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한 사람 100W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
① TV 1대 끄기 ② LED등 2개 끄기 ③ 에어컨 30분 쉬기

*문열고 냉방, 26°C 온도제한 등의 점검시간은 평일 오후 2시~5시입니다. (주말·공휴일 제외)